

사회복무요원, 응급처치로 노인 구해 '화제'

간호사 꿈꾼 송명욱씨, 복무 중기도 막힌 노인 응급 처치로 살려



간호학을 전공 중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노인보호센터에서 신속한 응급 처치로 노인의 생명을 구해 화제다. 지난달 13일 정오 광주 광산구 참사랑주야간보호센터에서 복무하던 송명욱(25)씨는 위층 보호센터 직원들이 소리치며 바빠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A씨가 점심을 먹던 중 뇌경색 증

상이 나타났고, 삼킨 음식물이 기도 를 막으면서 쓰러진 것이다. 송씨는 생명이 위태로운 A씨를 보자마자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송씨는 곧바로 A씨의 맥박 상태를 확인하고 학부 수업 때 배운 '하임리히법(질식한 환자의 목에서 이물질 을 제거하는 응급처치법)'을 시도했다. 송씨는 A씨를 일으켜 세우고 A씨의 배꼽부터 명치까지 힘껏 밀어 올리기를 반복했다. A씨는 1~2분 뒤 음식물을 토해냈다. 직원들도 함께 A씨의 입 안에 든 음식물을 밖으로 꺼냈지만 여전히 A씨의 얼굴은 파랗다 못해 검게 변해있었고, 맥박도 멈춰있었다. 송씨는 이미 한 차례 응급처치로

체력을 소진했고 온몸이 땀으로 뒤덮였지만 간절히 심정으로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5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급대원들이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다행히 A씨는 치료 중 의식과 건강을 회복했다. 송씨는 사회복무 때 전공을 살려 노인보호센터에서 하루 9시간 동안 노인들의 맥박·혈압·체온을 기록하고 재활 운동을 돕는 역할을 했다. 광주전남병무청은 신속한 응급 처치로 A씨의 생명을 구한 송씨에게 표창장을 줬다. 송씨는 지난 28일 사회 복무를 마쳤다. 송씨는 29일 "3월 복학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것"이라며 "졸업 이후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권형안 기자

포토뉴스



광주은행, 제31보병사단에 위문금 1000만원 전달. 광주은행은 최근 지역 항도부대인 제31보병사단을 방문해 군부대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100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서운 추위와 폭설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방호와 대민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위한 방문한 광주은행은 말은바 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권형안 기자

문순지 씨, 10년째 모교 살레시오여고에 장학금 기부

'문순지 장학금' 매년 100만 원씩 총 400만 원 상당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가 지난 2013년부터 10년째 장학금을 기탁해 온 한 동문의 아름다운 사연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연의 주인공은 살레시오여고를 지난 1988년 2월에 졸업한 제25회 문순지 동문이다. 35년여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학창 시절 모교의 따듯

하고 정겨운 기억들을 잊지 못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재학생 중 넉넉하지 못한 주변의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에게 용기와 힘을 보태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매년 100만 원씩 총 4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기탁해 왔으며 2022년까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수는 50여 명에 이르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고 있는 작은 사업체가 어려움에 처해 중단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모교와 후배들을 향한 열정을 결코 꺾을 수는 없었다. 학교에서는 '문순지 장학금'을 만들어 매년 졸업식 때마다 4~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김도기 기자

순천의 기적 남수단 톤즈에 전달되다

순천의 기적이 남수단 톤즈의 어린이들에게 전해졌다. '순천기적의도서관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순천기적의도서관에서 개최한 '2022 북적북적 바자회'의 행사 수익금 500만 원을 남수단 톤즈한센인 마을 '이태석 초등학교'에 학용품과 함께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금은 이태석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 학용품, 체육용품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바자회는 시민, 어린이, 지역서점, 출판사, 도서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여해 자원순환과 나눔을 실천했다.



순천만새마을금고 '사랑의 줌도리 쌀' 기부. 순천만새마을금고는 지난 26일 사랑의 줌도리 운동으로 모은 쌀 90포(10kg)를 저전동과 장천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저전동(50포)과 장천동(40포) 행정복지센터는 기탁받은 쌀을 관내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및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 90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순천=조준익 기자

전남대 교수팀 '뇌졸중 예후 예측 인공지능 기술' 개발

세계적 학술지 신경학 신경외과학 정신의학 저널에 발표

전남대학교는 신경과 최강호 교수와 핵의학·인공지능융합학과 김자혜 교수, 인공지능융합학과 김두영 석사과정생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뇌졸중 예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뇌졸중 예후 예측 인공지능 기술은 뇌 영상과 임상 정보를 토대로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향후 1년 내 주요 심뇌혈관 사건 위험도와 시점을 각 환자 개인별로 예측하는 것으로 딥러닝 기술이 활용됐다. 기존 뇌졸중 이후 예후를 예측하는 방법은 집단 전체의 위험도를 분

석하는 방식이었지만 연구팀의 기술은 임상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하며 임상상의 개별 환자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신경학 신경외과학 정신의학 저널(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and Psychiatry · 영항력지수 13.654) 1월호에 발표됐다. /김도기 기자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원 치유 캠프'

교원 38명 대상 '나와 타인을 찾는 심리여행' 성료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26일 어반브룩에서 '나와 타인을 찾는 심리여행'이라는 주제로 교원 38명을 대상으로 '2023 교원 치유 캠프 1기'를 성료했다. 29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교원 치유 캠프는 새학년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원의 내적 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격 유형검사 도구 중 하나인 MBTI를 활용해 교원 스스로 자신과 타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과

순천만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기부 릴레이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시민 등 참여 열기 확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기관, 기업체, 봉사단체, 시민 등 각계에서 2023정원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입장권 구매와 기부금 기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26일 국제습지센터에서 9개 기업체 및 단체와 입장권 구매증서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전남개발공사 1000만원, (주)원예에이치엔디 1000만원, 국제라인온스협회 355B3지구 4.5지역(순천)에서 920만원, 전남도 교통과 순천시 유도회에서 각 500만원, 순천시 미술협회 100만원, 22명의 순천시 청년일동이 100만원의 입장권을 구매했다. 이어서 순천만모링가협동조합에서는 2000만원 상당의 모링가티 4000세트를 박람회 조직위에 기탁했으며 한식당 청수정이 3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옥천(순창)조직 대중회에서 200만원, 순천시 사회복지과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300만원을 기부해 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탰다. 노관규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2023정원박람회에 보내주시는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순천=조준익 기자

제23대 박기정 완도해양경찰서장 취임

"기본에 충실, 현장에 강한 완도해경 이끌어 나갈 것"



완도해양경찰서는 27일, 제23대 박기정 서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기정 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며, 강한 조직력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박기정 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며, 강한 조직력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한편, 전임 김정수 서장은 제주청 경비안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완도=이무식 기자

광양 감동마로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설 연휴 출향인 대상 열띤 홍보캠페인 나서



광양시 감동마로회 회원 40여 명은 육곡IC 입구에서 출향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연이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에 모인 감동마로회 회원들은 '고향사랑 광양사랑, 광양사랑 부모사랑'이라는 슬로건으로, 부모님이 살고 계신 광양에 기부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 앞장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